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신년 메시지

새 출발의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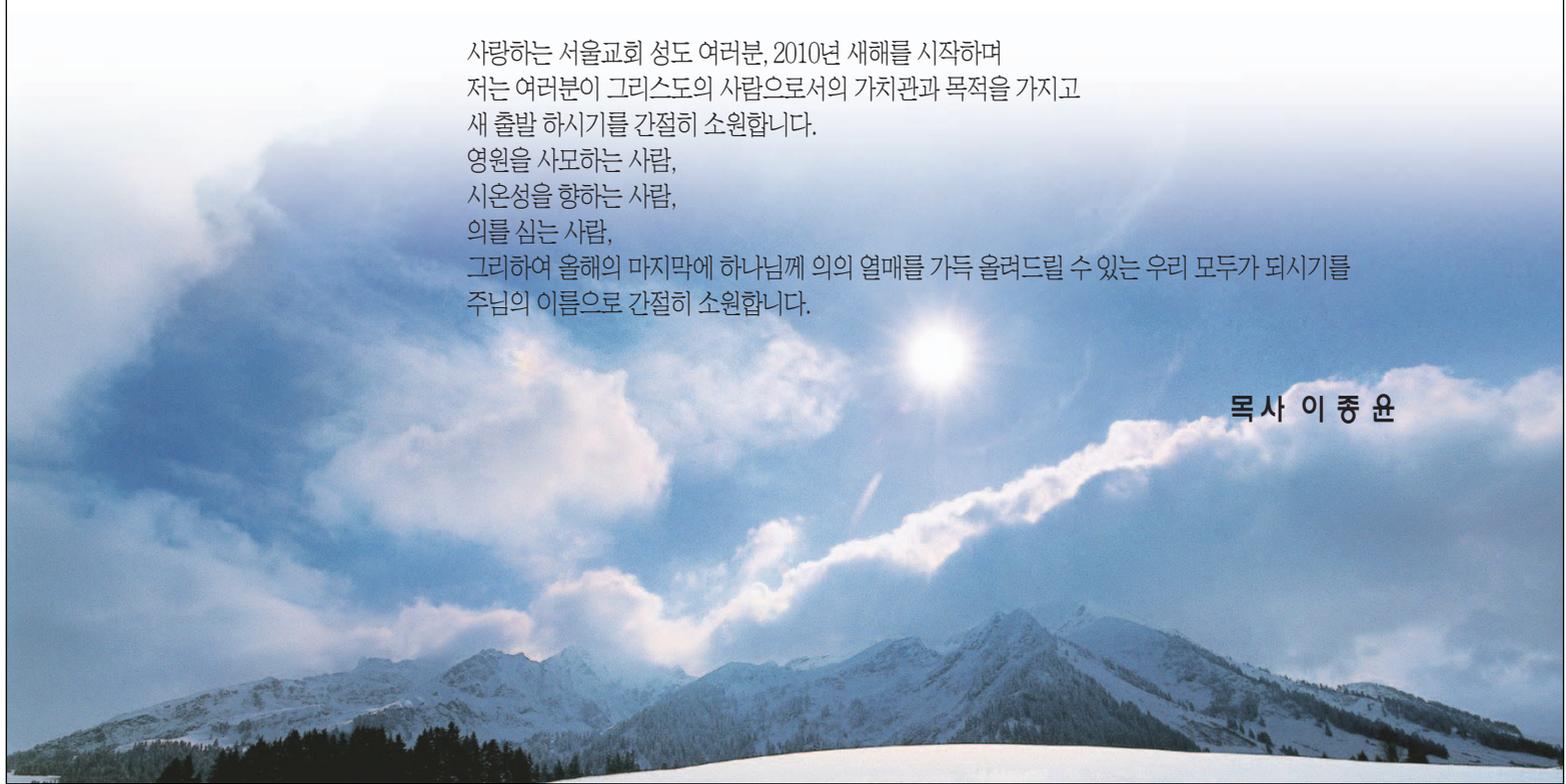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새 출발은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때 진정한 새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온 것은 과거가 흘러가고 새로운 시간이 도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월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변화만으로는 새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 기점은 과거나 현재 보다는 미래 비전에 있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는 우리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전진도 출발도 없습니다.

흠에서부터 온 인간이 흠으로 돌아갈 것을 모를 사람이 없지만 사람들은 이 엄연한 진리를 망각하고 삽니다. 천지를 진동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생각하던 영웅호걸도, 성군 다윗도, 무지했던 헤롯대왕도 결국은 한 줌의 흠으로 돌아갔습니다.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간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의 죽음을 끝으로 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서도 적용시키십니다. 의를 심는 이는 의의 열매를, 불의를 심는 이는 불의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2010년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새 출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 시온성을 향하는 사람, 의를 심는 사람, 그리하여 올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가득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이종윤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신년 감사 예배

성찬식: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순결서약식, 공동의회

2010년 신년 첫 주일인 오늘 우리교회는 신년을 감사하며 주일예배 시간에는 신년 첫 성찬식을 거행한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2010년도 순결서약식이 거행되고 참여하는 이들은 우리교회 등록교인 중 13세 이상 미혼의 젊은 이들로 오늘의 서약을 통해 결혼 전까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관리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한다. 오늘 서약을 하는 이들에게는 서약을 기억하도록 기념 반지가 주어진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펼치

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 운동'의 일환이며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1995년 첫 주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6년 동안 계속 거행하고 있다.

또한 찬양예배 후 예·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열린다. 등록된 세례교인은 모두 참여 바란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출발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여 은혜 충만한 2010년 되기를 소망한다.

2010년 청지기 수련회

4일(월)-9일(토) 오전 5시 본당

2010년 청지기 수련회가 2010년 1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6일간 본당에서 열린다. 청지기 수련회 중 새벽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에 열리며 새벽기도회 후 5시 35분 부터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담당 교역자들의 인도로 청지기

수련회가 진행된다. 서울교회 청지기 된 모든 이들(예배위원, 찬양대원, 교사,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교구 일꾼, 목회자 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차량, 식당, 교회직원, 장로, 권사, 집사 등)은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구분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05:00-05:30	새벽기도회 - 본당(설교: 부서 담당 교역자)					
05:35-06:20	예배위원 및 찬양대원의 역할과 자세(노헌상 목사)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 (황 광 목사)	복음의 최전방에 서라 (장석남 목사)	교구일꾼의 역할 (정수길 목사)	심금을 통한 교회봉사 (서명철 목사)	섬기는 자의 사명과 자세 (한상운 목사)
대상	예배위원 ·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차량, 식당, 직원	장로, 권사, 집사

성탄 감사 헌금... 어려운 이웃을 돌보다

가평군 내 빈약한 자구제, 사랑의 쌀 운동, 사랑의 온차 운동에 각 일천만원씩 전달

우리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나신 성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친 '성탄감사헌금'을 추운 겨울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사용하였다.

먼저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지난 21일(월) 우리교회 아가페타운이 위치한 가평군청을 찾아 성탄절기에 가평군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사용하도록 헌금 일천만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12월30일(수) 오후12시30분 목양실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성탄감사헌금 중 일천만원을 '한기총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이흥순 장로)에 전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흥순 장로는 서울교회의 관심과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다고 전하며 이 귀중한 헌금은 봉골에 전달하여 귀하



한기총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위원회에 헌금 전달



사랑의 온차 운동에 사용하도록 헌금 전달

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에 목양실에서 한국기독교교군선교연합회(사무총장 김대덕 목사)에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성탄감사헌금 중 일천만원을 '사랑의 온차(溫茶)' 운동에 사용하도록 전달하였다. 사랑의 온차는 추운 겨울 최전방에서 경계 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찾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운동으로 비전2020운동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성도들의 귀중한 헌금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회의 손길을 요청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 가정과 교회에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제2스데반회 신년기도회

2010년 1월 9일 (토) - 아가페 타운

우리교회 60세 미만의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제2스데반회 (회장 송인권 집사)가 2010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첫 월례회를 아가페타운에서 신년기도회를 갖는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세우신 직분을 잘 감당하

도록 결단과 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당일 오전9시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하며, 부부동반으로 제2스데반 회원들의 전원 참석을 기대한다.

특별찬양

2010년 새해 첫주일인 1월3일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인 고성진 집사의 찬양으로 드린다. 바리톤 고성진 집사는 한양대음대와 이태리 피렌체 시립아카데미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한서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오늘 찬양드림곡은 주님의 얼굴 보라(H.Boldback) 생명의 양식(C.Frank)등 총 세곡을 찬양드리며 반주는 김양언 선생(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이 수고한다.

교역자 대화의 시간



부교역자들과 덕담을 나누시는 이종윤 목사님

봉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사랑부에서 학생 수송을 위한 버스 운전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 내용은 주일 교회에서 출발해 상일동 소재 주몽재활원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오전은 8시 50분에서 10시, 오후는 12시 40분부터 2시까지입니다. 한 타임만 해주셔도 되고, 오전 오후 다 되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무국이나 사랑부실(102호)로 연락 바랍니다.

강남노회 신년하례회

서울 강남노회 신년 하례회가 1월 4일(월) 오전 7시 소망교회에서 모입니다.

화재·도난 예방책

겨울철을 맞아 화재와 도난의 위험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교회내 모든 방에서 온열기·커피포트 등 전열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식당, 지하주차장, 교육실, 찬양대 연습실 등 열린 공간에서는 성도들 각자 도난방지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위원들에게 듣는다

2010년, 하나

준비하고 정비하는 한 해

오정수 장로 / 기획위원장



기획위원회는 새해에도 위임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를 잘 감당하여 민족 교회를 섬기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교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온 교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타운'이 발달장애인들의 세계 최초 대학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또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센터로, 무엇보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요람이 되도록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2010년은 서울교회가 새 시대로 도약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제 1세대가 아름답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세대를 맞는 서울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정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도 서로 힘을 합해 균형있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육

김광신 장로 / 교육위원장



서울교회의 교육목표는 천국시민 양성입니다. 보통 시민도 아니고 특별시민도 아닌 천국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회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유아부에서 시작하여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부서가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교역자와 교사가 혼연일치가 되어 가르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교회표어에 발맞추어 거듭난 인간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 천국시민으로 인정받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과 기도가 삶의 원천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을 확인시키고 전도와 봉사의 훈

련을 통하여 신행일치의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사의 철저하고 구체적인 훈련과 헌신을 요구할 것이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시킬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노문환 장로 / 교구위원장



새해에는 모든 다락방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런 요인들은 하나하나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찬 다락방 모임이 될까를 함께 찾아보며, 다락방장을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다락방 모임이 온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교구에서는 교구장 장로와 남녀 교구 간사들이 다락방장들이 보다 원활하게 다락방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5월에는 교구 찬양대회를 통하여 교구식구들의 온전한 화합을 이루며 소리 높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있을 바자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교구의 단합된 모습과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은 우리교회로서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왔을까

성준경 장로 / 예배위원장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끝없는 의문과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며 이를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주일 마다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 드립니다.

예배위원들은 심령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이 가장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방해되는 일이 없이 질서 있는 가운데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모든 순서가 마칠 때까지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최고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긴장합니다.

이는 예배를 돕는 자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것이며 이러한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실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주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육신의 삶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타다 남은 포도병을 같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실 있는 찬양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선 장로 / 찬양위원장



올 해는 각 찬양대의 부장 장로님들과 지휘자들과 지체를 모아 더욱 기쁨 충만한 가운데 신령과 진정함으로 기쁘고도 즐겁게 찬양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을 다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기 위한 찬양대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외형적인 면 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알찬 찬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로부터 찬양의 내용에 이르기 까지 내실 있는 찬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님을 기쁘시게!

찬양대원 개개인의 음악적 기초 실력을 증진시키는데도 지휘자들과 뜻을 모아 노력할 것이며 각 찬양대의 대원수도 배가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기쁜 곳에 사는 사람들



이영수 장로 / 전도위원장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면 모두가 전도자인 것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는 받은 은사대로 여러 직분으로 나누어서 주님을 섬기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길거리 어디서든지 대화할 때 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내면 우리의 선한 행실은 저절로 나타나고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와 불의를 내어 쫓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썩 짝지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하더이다”(눅 10:17)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항상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이 확실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업을 성공하고 형통해도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 연명부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는 성도님들의 한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 천명 선교사 파송하기를

이영기 장로 / 선교위원장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파송의 비전을 서울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세계선교사 파송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0년까지 선교사 1000명 파송 비전이 서울교회의 새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터 장년부 성도들까지 동참하는 한가족 한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후원운동이 시작되는 2010년에는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세계선교의 생활화로 서울교회가 21세기 속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5대양 6대주에 세계선교의 전진기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언어와 기후 문화와 습관이 다른 지구촌 각 지역과 오지에 흩어져 복음 전파와 세계선교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47명의 선교사와 가족, 선교의 동역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울교회의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과 온 성도들의 참여와 열심으로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를 향한 선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21세기 세계교회를 향도해 가는 선교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0년 서울교회 교회학교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구와 다락방 온 교회기관이 혼연 일체가 되어 세계 선교사역과 선교사 가정을 위한 도고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서문석 장로 / 구제위원장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서울교회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 번 기억하며 특별히 어려움과 가난 때문에 실의에 빠진 이웃들을 돕는 일에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교회에 허락해주셔서 우리교회 목표로 빈약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

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욱 큰 관심과 열심을 갖게 하고 구제하는 예산을 더욱 확장해서 가난으로 인해 이 땅의 그늘진 곳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교회 성도 모두가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주의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한 해

이관규 장로 / 관리위원장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서울교회를 크게 사랑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고로 좋은 곳, 최고로 아름다운 곳, 최고로 쓸모 있는 예배당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교회에서는 이 예배당을 잘 관리하며, 소중히 활용하고, 국내외의 많은 행사장소로서도 귀중히 쓰이게 된 것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휴지 한 장, 작은 쓰레기도 남기지 말고, 줍고, 정리하고, 닦고, 쓸고, 쓰다듬어 이 세대를 지나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런 예배당을 물려 주는 것이 우리교회를 사랑하며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서울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2010년이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편지왔어요

당신의 일꾼으로

늘 고마운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님들께,

금년, 그리고 지난 20여년의 선교사의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과 삶으로 고백해 봅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홀로 외로워 고독해 할 때 누군가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쉽 없이 이어지는 사역들 속에서 빈 전대를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종이 아님에도 영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늘의 권위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역에 빈 공간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준비된 일꾼들을 때를 따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이 이제껏 베풀어 주신 사랑은 내가 잘나거나 특별한 순종을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압니다. 지극히 작고 부족한 나이지만 당신의 일에 나의 한 작은 부분을 들여놓게 하시어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실망한 적은 있습니다만 결코 절망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은혜로...
한 해 동안도 여러 모양으로 동역과 연합해 주신 신실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2009년 성탄에
터키어권선교회 & 안디옥열방교회에서
김종일, 백순미 선교사 가정 올림

위임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방글라데시 조남혜 선교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드와 보내주신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2월에 받았는데 올해는 정말 빨리 28일날 받았습다. 성탄절 지난 후 이곳도 기온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 쌀쌀함에 몸이 적응을 못하는지 몸살이 나서 아파 누워있는데 뜻밖의 선물로 열나 위로가 되고 감사하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 생각되서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도고기도팀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내며 제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남혜 선교사(방글라데시) 올림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뜻한 선물 잘 받았습다. 주안에서 함께 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계신것 때문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함박눈이 펄펄 쏟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감개무량한지요? 흰눈이 길한 징조로...모든 어두움을 몰

아낼것이라는 소망이 마음마음들에 가득했습니다. 초등부의 귀한 친구들, 그리고 늘 진심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들을 기억하며 저도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서로 함께 할수 있다는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온정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전해주시시오. 새로운 한해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우위 선교사(동아시아) 올림

순결서약식의 의미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



천정윤 성도(청년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 순결 서약이 마치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매와의 교제를 통해 오히려 순결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게 되니 제가 사랑하는 자매를 두고 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걸 가장 싫어할 것이라는 것, 반대로 자매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믿음 안에

서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자매는 그만큼 나를 통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젠 사랑하는 자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은 결혼할 때까지 마음으로, 육으로 순결한 사랑을 주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시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을 본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결한 결혼 예비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시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년축시

새해 아침

권용태 성도(2교구,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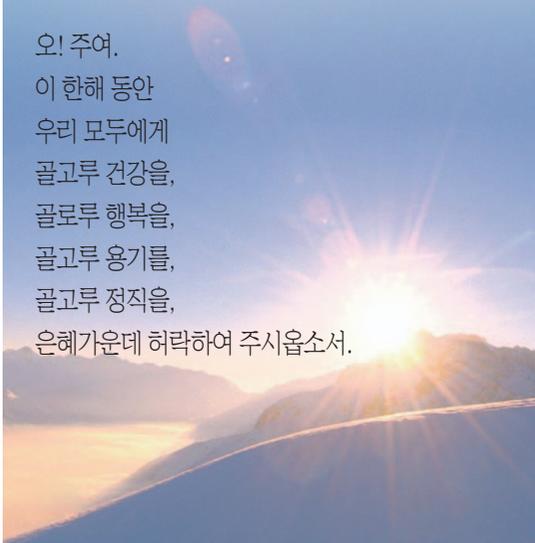
새해 아침의 햇살은
유난히 눈이 부시다.
참으로 신비롭구나.
새 하늘의 지평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새해 아침,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로 시작하자.

세상에 취해서
넘어지지 않게
기쁨이거나 슬픔이거나
당신을 잃는 일이 없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순종의 탑을 쌓아보자.

드러나지 않게,
열 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겸허를 배우며,
제발 난 체 하지 말고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게
정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자.

오! 주여,
이 한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건강을,
골고루 행복을,
골고루 용기를,
골고루 정직을,
은혜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0년 연간 주요 행사계획

· 송구영신예배 · 신년감사예배 · 공동의회 · 순결서약식 · 청지기수련회 ·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 장학금 수여식 · 사관학교 졸업감사예배 · 제37학기 목회자 세미나 · 제27학기 성경대학 · 교사 교육 및 연합 기도회 · 부활절 · 화요정오음악회 · 사관학교 세례식 · 찬양대원세미나 · 교구 찬양대회 · 공동의회 집사 · 권사 선거	1.1(금) 0시 1.3(주) 1.3(주) 찬양예배시 1.4(월)~1.9(토) 1월~2월 2.7(주) 2월~3월 중 3.8(월)~5.10(월) 10주 3.8(월)~5.16(주) 10주 3.23(화) 4.4(주) 4월~5월 4월 중 4.27(화) 5.14(금) 5.16(주)	· 2010총해자전 · KIMCHI신학세미나 · 맥추감사절 ·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 농촌전도단 파송 · 10기단기선교팀파송 · 장학금 수여식 · 당회원 수련회 · 38학기 목회자세미나 · 28학기성경대학 · 2010 열린 바자 · 성경통독사경회 · 화요정오음악회 · 사명자대회 · 성경암송대회 · 태신자 초청찬치	6.6(주)~6.25(금) 6.22(화) ~ 6.24(목) 7.4(주) 7월~8월 연중 8.2(월)~8.11(수) 8.8(주) 8.14(토) 8.30(월)~11.1(월) 10주 8.30(월)~11.7(주) 10주 9.9(목)~10(금) 9.22(수)~23(목) 10월~11월 10.10(주)~11.28(주) 10.17(주) 예선 10.22(금) 본선 10.30(토)	·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19주년 감사주일 · 각 지회 총회 · 2011 직분자 임명 · 교역자 · 장로 목회정책 발표회 · 교구총회 · 찬양대 총회 · 교사총회 · 성탄축하예배 · 교회학교졸업예배, 향촌직은 퇴, 안식년, 전도사상, 주간성 경공부수로 · 위임목사 이 · 취임식	11.14(주) 중 · 고 · 대 · 청 특별찬양 11.21(주) - 감사찬양예배 11.28(주) - 감사예배 · 임직식 · 선교사 파송식 11월 중 12.5(주) - 서리집사 · 교구일꾼 · 섬김위원전원 12.12(주) - 찬양대원 12.15(수) - 은빛 호산나 시온 찬양대원 12.19(주) - 교회학교 교사 12.3(금) 12.5(주) 부서별 12월 중 12.19(주) 12.19(주) - 성탄 축하찬양 12.24(금) - 성탄전야행사 12.25(토) - 성탄축하예배 12.26(주) 12.29(수) - 2부예배(1부와 연합)
--	---	---	---	---	--

2010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영어예배부 겨울수련회 시작으로 (1월22일(금)-23일(토) 아가페타운)

2010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 페타운에서 부서별 계획에 의거해서 열린다.
다. 이번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를 통해 서울교회 교 이번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는 우리교회 2010년 주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요8:29, 시37:4)에 따라 성경학교 · 수련회 계획을 세웠으며 서울교회와 아가페타운에서 부서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2(월)~23(화)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2.22(월)~23(화)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황 광 목사
유년부	2.22(월)~23(화)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김안성 목사
초등부	2.22(월)~23(화)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서명철 목사
중등부	1.25(월)~1.27(수)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박종민 목사 / 황 광 목사
고등부	1.28(목)~1.30(토)	아가페타운	예배-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이종운 목사 / 노현상 목사 / 박광일 전도사
사랑부	2.21(주일)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문정훈 목사
대학부	2.4(목)~6(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박노철 목사 / 유문전 목사
청년1부	2.28(주일)~3.1(월)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을 열망하라	이종운 목사 / 박노철 목사 / 장석남 목사
청년2부	2.26(금)~2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문정훈 목사
디아스포라	1.29(금)~30(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노현상 목사 / 박광일 전도사
에버다	2.2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6(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상은 목사 / 황 광 목사
영어예배부	1.22(금)~23(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조슈아 목사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월6일(수) Theological journal of KIMCHI 편집위원 회, 7일(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신년하례회, 상임위원장 위촉식을 갖는다. 장로교신학인준위원회를 소집한다. 8일(금) 에든버러 100주년 한국대회 준비위원회를 소집한다. 할렐루야교회 신년금요부흥회를 인도한다.

■ 주간식당 봉사: 제2스데반 (1.3) 빌립선교회(1.10)

■ 금주의 식사 : 방효철 장로 남성경 권사 가정
전용식성도 조영옥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청지기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3.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소서.
4.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